

## □ 사이시옷(ㅅ) 표기

순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나 한자어와 고유어가 어울려 만들어진 합성어에서, 된소리가 나거나 ‘ㄴ’소리가 한 개 혹은 두 개가 덧나는 경우 앞말의 모음에 붙여쓰는 시옷.

㉠ 된소리가 나는 경우	나룻배[나루뺨], 조갯살[조개쌀], 잇자국[이짜국] 컹병[귀뺨], 사자밥[사자뺨], 햇수[해수]
㉡ ‘ㄴ’소리가 한 번 덧나는 경우	갯목[괘목], 빗물[빈물], 아랫마을[아랜마을] 제삿날[제산날], 훗날[훈날], 뒷마루[뒀마루]
㉢ ‘ㄴ’소리가 두 번 덧나는 경우	뒀일[뒀닐], 나뭇잎[나문닙], 배갯잇[배갸닐] 예삿일[예산닐], 훗일[훈닐], 가윗일[가윈닐]
㉣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외적인 한자어	곳간(庫間) [고간], 셋방(貰房) [세뺨] 숫자(數字) [수짜], 차간(車間) [차간] 뒀간(退間) [뒀간], 횃수(回數) [회수] <b>단 6개뿐</b>
㉤ 합성어에서 ‘ㅂ’이나 ‘ㅎ’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소리 나는대로 적음.	범씨(범의 씨), 접때(지난번), 좁쌀(조의 쌀), 햅쌀(신미) 머리카락, 살코기, 수캐, 암탉

### ☑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경우

- ① 한자어인 경우 : 초점, 소수
- ② 외래어가 결합한 합성어인 경우 : 로마자[로마짜]

### ☑ 사이시옷 요점

- ① 합성어를 이루는 두 단어 사이에 새로운 소리가 더해지는 경우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두 단어 사이에 쓰이는 시옷.
- ② 사이시옷은 어떤 경우에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만 표기할 수 있다.  
밤길[밤깁], 아침밥[아침뺨]

숫놈[순놈] 수소 숫사자[수싸자]	수캐, 수탉, 수평아리 수강아지, 수돼지 수탕나귀, 수키와 수톨쩌귀, 수컷	숫양[순냥] 숫염소[순념소] 숫쥐[순쥬]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+ㅎ+개=수캐, 수+ㅎ+닭=수탉, 수+ㅎ+병아리=수평아리

전셋집 : 傳貰 + 집 [전세집]  
전세방 : 傳貰 + 房 [전세뺨]

나릿과 : 나리 + 科 [나리과]  
장미과 : 薔薇 + 科 [장미과]